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7월 4일(금)

(음력 6월 10일)

Пятница

4 июля 2025 г.

№ 26 (1214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 8일은 러시아에서 가족·사랑·충실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촬영)

단신

주지사, 연방 차원에서 지역 운영 성공 사례 발표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노동 생산성: 전략에서 실행으로" 전략 세션에서 사할린주의 린 기술 도입 및 프로젝트 관리 성과를 소개했다.

주지사는 "사할린의 의료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 받았다. 우리는 행정의 고객 중심성과 린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 생산,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기반 운영에 근간한 사할린의 관리 체계는 지역 경제 전 분야의 상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전략 세션은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국영기업 "로스아톰"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 경제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합 실행 프로그램 수립을 목표로 했다. 총 31개 지역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할린 지역 사회 사업, 전국 경연대회 "미래는 우리"에서 우승

사할린주의 사회 사업 프로젝트 "사랑과 우정"이 전국 사회 사업 경연대회 "미래는 우리"에서 우승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로드니크'미성년자 사회복지 센터가 추진했으며, "다자녀 러시아"프로젝트 홍보실이 전했다.

"사랑과 우정" 프로젝트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우정의 가치 함양, 훈련 및 게임을 통한 자신감 증진을 목표로 한다. 실시간 교류를 통해 아동들은 신뢰 관계 구축,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 이해, 친구 만들기 등을 배운다.

2025년 «미래는 우리»대회에는 70개 지역에서 164개 지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41개 지역 83개 사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7월 9~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다자녀 러시아" 포럼에 초청되었다.

사할린 청소년 음악가, 〈스파스카야 타워〉 축제 참가

사할린 청취 관현악단 "브라보"(지휘자 박 다니일)와 아동예술학교 "에트노스"의 한민족 타악기 합동 앙상블(지도 신 율리아)이 큰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러시아 최고 청소년 음악 단체 12팀에 선정되어 권위 있는 축제 "어린이를 위한 스파스카야 타워"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붉은 광장 무대에 오른다.

사할린 연주자들은 8월 25~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17회 국제 군악 축제 "스파스카야 타워"에 참가한다. 섬 지역 음악가들이 이 축제 무대에 오르고 국가 중앙 광장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정신적 가치 보존 및 강화가 핵심 목표이며, 2025년 축제는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과 조국 수호자 기림을 주제로 한다.

존경하는 사할린주 및 쿠릴 열도 주민 여러분!

가족과 사랑, 충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기념일은 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온 전통적 가치를 되새겨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튼튼한 가정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곁에서 우리는 생애 첫날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느끼며, 돕고, 믿고, 용서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바로 가족을 통해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이 대대로 전수됩니다.

사할린주는 2025년을 '행복한 모성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의 논리적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둔 여성과 임신부를 보살핌으로 감싸며,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성의 길을 걷고있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여성들에게 개인 보좌관('행복의 안내자'), 전문 보모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임신, 육아,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섬 기업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동향인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넘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녕,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사할린주 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교사 500명,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받는다

사할린주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초와 인공지능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는 법에 대한 연수가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스베르반크 지원으로 주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6월 30일(월) '학교 21'의 일환(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첫 교사 집중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연수생들을 만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저는 소련 학교를 졸업했고, 그 교육 체계가 최고였다고 확신합니다. 배우들이 스타니슬랍스키를 통해 연기를 배우듯, 지금도 물리학은 모두가 란다우 교과서로 배웁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 세계를 바꾸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토대를 유지하면서도 현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교육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기타 지역 중등교사·초등교사 50명이 참가하며 이들은 인공지능을 업무 및 학생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실질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노동 시장에 진출한 학생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현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활용법을 가르치고 직접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름 기간 동안 100명을 추가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올해 말까지 최소 500명의 교사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시키라는) 과제를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기관 내 동료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변화 리더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사할린 주 교육부 장관 아나스타시야 키르테와가 설명했다.

인공지능 도구는 이미 주내 교육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다. 섬 교사들은 스베르의 '교사 보조' 서비스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이 서비스는 수업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수업 질을 분석하며 개선점을 권고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조교에게 숙제 검토도 맡긴다. 사할린주 정부는 총 70여 가지 AI 활용 시나리오를 운영 중이며, 인공지능은 환자의 엑스레이와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화재, 도로의 결함, 무단 매립지, 하천의 쓰레기 등을 인식(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학교 21' 프로젝트는 '사할린의 날개' 연구 개발 센터를 기반으로 스베르방크와 사할린 주 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108명의 참가자가 IT 교육에 등록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미 사할린주 IT 기업에 취업했다. 스베르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말 기준 '학교 21' 사할린 캠퍼스는 교육 품질 면에서 러시아 내 최고로 선정됐다.

(주정부 자료에서)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동포 특별법 개정 촉구, 방한 결과 발표회 열려

지난 6월 28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대표단의 방한에 대한 보고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약 15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모여 6월 18일 한국 국회에서 개최된 '사할린 동포 포용정책 공개토론회' 참석 결과와 향후 과제를 듣고자 했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자세히 방한 목표를 이야기했다. 주한인협회의 박순옥 회장, 임엘비라 고문,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6월 14~20일 한국을 방문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과 만나고 무엇보다 사할린한인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이재강·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만났다. 핵심 의제는 물론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개정이었다.

박 회장은 작년 10월에 한국을 방문할때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과 만나 사망한 1세들의 자녀들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대상으로 되지 못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며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걸 주장했다. 또 작년 12월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위해 사할린에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의 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또다시 부모 사망 2세들의 문제를 내세웠다 했다.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18일에 한인문화센터에서 공개 간담회를 열어 KIN(지구촌동포연대)과 함께 한국국회에서 토론 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2세 설문 조사를 계속 할 것을 결정했다.

박회장은 1월 18일 KIN(지구촌동포연대)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한인협회는 본 협회와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가 30년간 수집한 영주귀국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무엇보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았다고 했다. 또한 주한인협회가 2015년에 2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부모가 1931년생 전후로 나뉘어 2세 조사를 실시했다. 정월 간담회 이후 2



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2세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박회장은 영주귀국 현황 통계자료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장기간 파트너인 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가 온라인으로 참가해 발표했다.

그는 2020년에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주한인협회와의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처음엔 5월에 하려고 했는데 한국내 사정, 대통령 선거 이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게 좋을 것이란 생각으로 6월 18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는 국회의원 5명(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양문석, 이용선,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결정되고 최대 표는 각 국회의원을 소개하고 현재 특별법에 대한 개전안(양문석 국회의원 등 11인)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까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사할린 동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대표는 국회 통과 과정을 자세

히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박순옥 회장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1세대 중 상당수는 특별법 제정 전 사망해 귀국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자녀(2세대) 특별법에서 소외된 것이 안 되는 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개정안이 빠른 속도로 심사를 받고 통과하도록 한국측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영주귀국 시행에 대한 질문도 적지 않았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회 기금, 사할린 연금 수령자들의 무료 휴가 여행 방법 설명

2025년 초부터 이미 2,057명의 사할린 연금 수령자들이 2년에 한 번 제공되는 휴가지로의 무료 왕복 여행 권리를 이용했다. 이 지원 조치는 극북 지역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보험 연금(장애 연금 포함)을 수령하는 비취업 연금 수령자에게 제공된다.

러시아 사회 기금의 사할린주지부 홍보실에 따르면, 이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여행을 다녀온 후에 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연금 수령자는 항공권, 기차표 또는 다른 교통편 티켓을 직접 구매하여 휴가를 가고, 다녀온 후 지출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한다.

두 번째 방법은 특별 이용권(여행 서류)이다. 이 방법은 자신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연금 수령자는 사전에 러시아 사회기금 고객 서비스부에 문의하여 특별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이용권은 매표소에서 정식 티켓으로 교환된다.

러시아 사회기금 사할린주 지부 부관장 나타리야 안토뉴크는 두 번째 방법이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 이용권을 받을 때 연금 수령자는 티켓 구매를 위해 자신의 자금을 쓸 필요가 없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보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연금 수령자가 이미 자비로 휴가를 다녀왔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 러시아 사회기금, 다기능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선택 경우 신청서에 티켓의 스캔본이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청서를 5 영업일 이내에 검토하며, 지급금은 다음 연금과 함께 신청자에게 송금된다.

Соцфонд рассказал, как пенсионерам Сахалина бесплатно съездить в отпуск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уже 2 057 сахалинских пенсионеров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своим правом на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к месту отдыха и обратно, которо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раз в два года. Эта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доступна неработающим пенсионерам, получающим страховую пенсию (в том числе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и проживающим в района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приравненных к ним местностях.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тде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можно двумя способами.

Первый – это компенсация после поездки. Это самы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й способ. Пенсионер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купает билеты на самолет, поезд или другой транспорт, едет в отпуск, а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подает заявление на возмещение потраченных средств.

Второй способ – это специальные талоны (проездные документы). Этот вариант позволяет не тратить собственные деньги. Пенсионер может заранее обратиться в клиентскую службу ОСФР и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талоны, которые затем в кассе обмениваются на полноценные билеты.

Как поясн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управляющего Отделением СФ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Антонюк, второй способ имеет весом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При получ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талонов пенсионеру не надо тратить соб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для покупки билетов.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из поездк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отчетные документы тоже не требуется», — подчеркнула она.

Если пенсионер уже съездил в отпуск за свой сче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омпенсации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с заявлением в ОСФР, МФЦ или подать его онлайн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В последнем случае к заявлению нужно прикрепить сканы или фотографии билетов.

Специалист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заявление в течение пяти рабочих дней, а саму выплату перечислят заявителю вместе с очередной пенсией.

Поронаискс 출신 여성 선수, 3톤의 힘머 차를 이빨로 밀어 세계 기록 경신

운동 선수 류드밀라 스피리나가 3톤이 넘는 힘머(HUMMER) H2 SUV를 입으로 물고 당기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포로나искс 도사아프 행사장에서 세워졌다.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 채널 '사랑을 담아, 여러분의 섬들이' 전했다.

41.33초 동안 류드밀라는 밧줄을 이빨로 물고 등짐으로 앞으로 이동하며 차량을 13.5미터 끌었다. 약 30명의 목격자가 이 독특한 업적을 지켜보았다. 결과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국제 기록 등록 기관 '인터레코드'로 전송되었다.

Спортсменка из Поронайска побила мировой рекорд, сдвинув зубами трехтонный HUMMER

Спортсменка Людмила Спирина установила мировой рекорд, сдвинув внедорожник HUMMER H2 весом более трех тонн — зубами. Это произошло в Поронайске на площадке ДОСААФ.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С любовью, ваши острова».

За 41,33 секунды Людмила протаскала автомобиль на 13,5 метра, удерживая трос зубами и двигаясь спиной вперед. За уникальным подвигом наблюдали около 30 свидетелей. Результат официально зафиксировали и направил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гентство регистрации «Интеррекорд».

러시아 극동 주민, 자녀 당 연간 4만 2천 루블 지출

아위토(Avito) 분석가들은 극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녀 용품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그리고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극동 연방관구 주민들의 연간 평균 지출액은 42,469 루블이었으며,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중고 거래(리세일)로 어린이 용품을 구매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56%는 적어도 한 번은 중고로 어린이 용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13%는 중고로 그런 물건을 구매한 적은 없지만 그런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광고를 통해 아동용 가구(아기 침대, 테이블, 의자, 유모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극동지역 주민 3분의 1은 중고 겔옷, 24%는 책과 '발달 장난감', 22%는 살균기와 아기 모니터를 포함한 가전제품 구매 의사가 있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18%는 중고로 장난감을, 13%는 신발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광고를 통해 유아용 침대, 테이블, 유아용 의자, 유모차 등 아동용 가구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 지역 거주자의 1/3은 중고 겔옷, 24%는 책과 '발달 장난감', 22%는 살균기와 아기 모니터 등의 장비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8%는 아동용 장난감을, 13%는 신발을.

아위토 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이사 알렉세이 게블리츠는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일부 용품의 사용 기간이 매우 짧다고 언급했다. 유모차, 가전제품, 가구, 겔옷은 오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 이상에 유용할 수 있다.

"2025년 4~5월, 아위토에서 중고 아동 가구, 남녀 아동복 및 신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유모차와 카시트 판매는 70% 이상 증가했다. 중고 거래는 상당한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중고 카시트나 가구를 구매할 때 최대 70%, 아동복 구매 시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이사가 덧붙였다.

응답자의 74%는 적어도 한 번은 광고 플랫폼에서 어린이 용품을 판매한 적이 있으며, 또 다른 14%는 이제 막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Жи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ратят на ребенка 42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год

Аналитики Авито провели опрос среди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ыяснили, сколько они тратят на товары для детей, а также пользуются ли они платформами объявлений. Оказалось, что в среднем на такие расходы у жителей ДФО уходит 42 469 рублей в год, а семь из десяти опрошенных готовы покупать детские вещи в ресейле.

56%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метили, что хотя бы раз покупали детские товары «с рук». Еще 13% никогда не покупали такие вещи в ресейле, но при этом рассматривают такой вариант.

Респонденты готовы покупать по объявлениям детскую мебель: кровати, столики, стульчики и коляски. Тре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окупку б/у верхней одежды, 24% — книг и «развивашек», а 22% опрошенных готовы купить технику, включая стерилизаторы и радионяни. Помимо них, 18% опрошенных готовы покупать «с рук» детские игрушки, а 13% — обувь.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동양김나지아·시한인회, 한민족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지난 6월 26일 오전 10시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 김나지아에서 '한민족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지난 5월말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와 동양김나지아(교장 이와노와 아나스타시아) 양측이 체결한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동양 김나지아의 하계 캠프에 참여 중인 1~3학년 초등학교생 6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임원과 청년부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윷놀이, 투호 등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놀이 6종목을 소개하



고, 단체전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6팀으로 나뉘어 열심히 승부를 다투었다. 경기 결과, 1~3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상장과 달콤한 선물이 수여되어 참가자들의 기쁨을 더했다.

학생, 시한인회와 학교지도부 측은 행사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기뻐했다고 한다.

학교와 시한인회는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중이라고 전해졌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인천시의회,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 제정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시행 예정인 조례는 인천에 주소를 둔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해 시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지원 사업은 한국어·기초생활 적응 교육,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조 등 보건·의료서비스,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의료·공공기관 방문 또는 문외에 필요한 통번역서

비스 등이다.

인천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가 다수 정착한 지역으로, 지난달 기준 628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동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섭 의원(남동구 제4선거구)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충북대 학생 14명, 사할린 한인 삶과 인생 담은 다큐 제작

청주시 오송 거주 사할린 한인 25~30명 인생사 영상 수록



▲ '사할린 한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충북대 학생들이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충북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한 장비 활용 수업에 참여했다./충북대 제공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인생을 담은 '사할린 한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러시아언어문화학과 13명, 사학과 1명 등 학생 14명은 여름방학 기간 충북 청주시 흥

덕구 오송읍에 거주하는 70~80대 사할린 한인 25~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만들 예정이다.

김태욱 충북대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오송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는 55명인데 이들의 구술기록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명 한명의 개인사가 전체적인 한인사를 만들어 가는데 일부분으로 작용해 한인사를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현(러시아언어문화학과 3년), 지선우(사학과 4년) 등 6명은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충북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한 장비 활용 교육 수업에 참가해 캠코더·삼각대 사용법, 카메라 메뉴 설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기법을 배웠다. [충청타임즈]

'사할린' 선두개발지역 2개 신규 레지던트, 관광·가족휴가 프로젝트 추진

'사할린'선두개발지역 레지던트인 '에코라이프'회사와 '현대형 접대 기술'회사는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섬 지역에서 가족 휴가를 보낼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와의 계약에 따른 총 자본 투자액은 약 2억 루블리에 달하며 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에코라이프'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주거용 주택 20동, 100명 수용 규모의 다기능 교육관, 50명 수용 규모의 텐트 캠프,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도로, 40개의 스테이지와 페인트 볼장을 갖춘 로프 파크, 휴양을 위한 사계절 정자 5동이 건설될 예정이다. '에코캠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크세니아 우사토와 '에코라이프' 대표는 "우리 '에코 캠프'는 사할린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가족 휴가 공간입니다. 단순 숙박처가 아닌 활기차고 교육적인 여가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 중입니다. 가족은 현대식 숙소에서 편안히 머물고, 아이들은 전문가 감독 아래 교육 프로그램·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부모는 안전을 확인한 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선두개발지역 특혜 없으면 이 지역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레지던트 지위 덕에 기업 수익성을 확보하고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대형 접대 기술'회사는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관광단지 내 가족 휴양단지를 건설한다. 여기에는 10개 객실의 호텔, 전면 유리창의 50석 카페, 스카 서비스 목욕구역 2개소, 바비큐 공간이 포함된다. 이 휴양단지는 2027년 개장 예정이다.

2025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80명 선발

재외동포협력센터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재외동포 거주국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2025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80명을 신규로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초청장학생은 재외공관의 추천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해 선발심의, 면접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은 "선발된 동포 학생들이 모국에서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첨단 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이공계 동포학생들을 발굴하는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사업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추진하는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장학생은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 학위 취득과 다양한 문화·역사체험과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알렉산드라 한 '현대형 접대 기술' 대표는"선두개발지역의 특혜와 혜택 덕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레지던트 지위는 호스피탈리티 분야 신규 사업 개발과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단지는 현대적 접대 기술과 전통적인 산장의 아늑함을 결합합니다. 4중 에너지 효율 유리부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공간 설계까지 세부사항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목욕 구역에서는 고전적 러시아 목욕 전통과 현대적 스파를 융합한 독특한 컨셉을 구현합니다."라고 전했다.

극동개발공사 마리아 그리신코와 사할린·쿠릴 책임자는 "신규 레지던트들의 프로젝트는 주관관 발전 전략과 부합하며 주민들과 손님들에게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은 첫 5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 제로, 10년 동안 7.6%로 인하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극동개발공사 및 지역 정부로부터 "단일 창구" 형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사할린의 관광 잠재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행정적 특혜 적용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그리신코와 책임자는 덧붙였다.

현재 '사할린'선두개발구역에는 총 73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계획 투자액 1,866억 루블리 중 391억 루블리가 이 지역 경제에 투입됐고, 일자리 3,300개가 창출됐다. 레지던트는 10년간 보험료 7.6%, 첫 3~5년간 토지세 면제, 첫 5년간 재산세·법인세 면제, 6~10년간 동 세금 감면을 적용, 토지 제공·인프라 지원 등 상당한 세제 혜택 및 특혜를 받는다.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광복 80주년 맞아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를 소개한다.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강명세

관리번호	70006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강명세	한자	姜明世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96-12-20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충청남도 공주 신상		

공훈록

1919년 4월 이범윤(李範允)을 분부 총재로 설립된 대한군부는 북간도와 연해주의 의병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이들은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명월구(明月溝)를 근거지로 하면서, 만주 각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통신원을 파견해 무기와 탄약, 기타 군수품을

구입하는 활동을 벌였다.

1920년 9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서 무기 구입을 추진하던 대한의군부 통신원 최병직·박봉래(朴奉來) 등은 같은 해 10월 10일 러시아인 드브이친에게 소총 2천정, 탄환 20만 발을 구입했다. 이때 강명세는 구입한 무기와 탄약이 독립군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도 통역을 해 군수품 구입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다음 날 이를 운반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어 청진경찰서로 압송됐다.

강명세는 1921년 5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11월 6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편집 이철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их игр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Яркий калейдоскоп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развернулся 26 июня на в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прошел увлекате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их игр,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школьного летнего лагеря. Он прошел в рамках заключенного в мае эт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ЮСМООК и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ей.

Активисты ЮСМООК погрузили юных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 учеников 1-3 классов – в мир шести удивите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гр. Ребята с азартом познакомились и сразу же вступил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чэгиаги (제기차기 – ловкое подбрасывание «волачика» ногой), такти (택지 – игра с переворачиванием бумажных «фишек») конгинори (공기놀이) – игра в «кашечки», пискочхи (비석치기) – динамичное «выбивание» фиговок, юннори (윷놀이 –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настольная игра с палочками), тухо (투호 – метание стрел в сосуд). Участники, разбившись на 6 команд по 10 человек, развернули настоящие командные баталии. На площадке царили азарт, смех и дух здоров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были выявлены сильнейшие. Команды, занявшие почетные первое,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получили не только заслуженные дипломы, но и вкусные сладкие призы, ставшие приятным завер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СМООК и педагоги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не только активностью детей, но и самим ходом мероприятия. Дети с неподдельным интересом осваивали новые



игры, а педагоги отметили культурную и воспитательную ценность такого формата досуга.

Партнерство школы и ЮСМООК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уже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следующ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общили в ЮСМООК.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

Знания чемпиона – в копилку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ы для «Зарницы 2.0»

1 июля в Центре НКО при Ассоц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СК) состоялась важная встреч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движения «Первые», готовящихся к игре «Зарница 2.0».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АСК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Федерация пейнтбо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стала встреча с Денисом Абузаровы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оманды из г. Пыть-Ях (ХМАО – Югра) –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гр «Зарница 2.0» 2024 года. Денис выступил не просто как успешный наставник, но и как ведущий организатор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 городском и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Он поделился бесценным опытом подготовки команды к победе, подробно осветил ключевые аспекты: технику подготовки команды,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нюансы, привлечение ресурсов,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начение патриотизма в работе с молодежью и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ем.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проявили живой интерес, задавали множество глубоких и прак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я как финанс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так и потенциал самих игроков. Участники не только узнали, как строится настоящая командная игра, но и зарядились на победу. Прошли также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по отработке тактик.

Завершил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дня мастер-класс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от активистов АСК. Дьячкова Светлана, Хе Светлана и Ким Маргарита не просто делились опытом, а вовлекали участников в процесс с душой и энтузиазмом. Гости научили готовить блюд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приготовить быстро, а также угостили лапшой «Рамен». В тепл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незаметно пролетели 4 часа.

«Эта встреча дала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команде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нять опыт у сильнейших,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



дателя АСК Александр Квон. –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и вдохновение, несомненно, укрепят их шансы на успех в «Зарнице 2.0». Пожелаем им удачи!»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АСК)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судили итоги поездки в Корею делегации РООСК

Около 150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брались 28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чтобы узнать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делегаци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ОСК стало участие в публичном обсуждени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шедшем 18 июн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К.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советником организации Лим Эльвирой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Ли Сергеем провела серию встреч с корейскими законодателями, включая депутатов Ли Джэ Гана, Ян Мун Сок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 др. Ключевой темой ста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нятия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тобы право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получили де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до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2020 г.) и не с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ю мечту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Пак Сун Ок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едшествующей работе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ешение об этом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открытой встрече, прошедшей в ККЦ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месяцев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работа по актуализации списков 2-го поколения, анкетирование которы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2015 г. Помимо уточнения старых данны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анкетирование среди людей, не прошедших данное анкетирование в 2015 г.

В онлайн формате в открытой встреч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Чхве Сан Гу, который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 о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с РООСК над внесением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Он также сообщил, что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депутаты парламента, чье слово имеет вес среди политиков. И потому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ия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достаточно велика. Как известно, в конце мая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был внесен проект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Чтобы эти поправки прошли экспертизу и были приняты нужны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этот день были также оглашены цифры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Был затронут также вопрос о приведении в порядок документов. Было задано немало вопросов по процедуре репатриации.

Было подчеркнуто, что работа в отношении 2-го поколения, чьи родители так и не дождались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иктория Бя)

Глава Интерпола в России встретилс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олицейским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 инициати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состоялась рабочая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о встрече участвовали начальник НЦБ Интерпола МВД России генерал-майор полиции Валерий Калачёв, помощник начальника НЦБ Интерпола МВД России подполковник полиции Сергей Гладковский,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 начальник полиции полковник полиции Алексей Попов 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ения НЦБ Интерпол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подполковник полиции Александр Тегай.

О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нсула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Пак Мин Чхольа, полицейский атташ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друг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области полиц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каналам Интерпол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ения паромного сообщения, а такж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пассажирского поток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Это повлечёт за собой потребность оперативного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по вопросам, входящим в компетенцию УМВД России по Приморскому краю.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борьбы с терроризмом и экстремизмом, борьбы с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а также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в Интернете и в сфере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наркотиков.

(<https://t.me/saramkor>)

Визы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х стран будут едиными

С целью устранения дискримин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граждан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ело 25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экспертное совещ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меры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видов разрешений на их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сообщает Всемирное радио KBS.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ещало устран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ю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путём объе-

динения визы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F-4), визы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H-2),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я сферы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изам F-4.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заявило, что на основе результатов обсуждений разработает конкретный план объединения новых виз. Такж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ить исслед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 расширению сферы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F-4 и способах управления статусом занято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ДР уведомила UNC о план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ДМЗ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уведомила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UNC) о план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креплений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ДМЗ). П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К, это первое уведомлением такого рода за более чем шесть месяцев. Север намерен возобнов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граждений из колючей проволоки на своей сторон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отказался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свой контакт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оенными. С апр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азвернула войска в ДМЗ для установки мин, возведения противотанковых заграждений и укрепления дорог.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активизировали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в конце 2023 года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ак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враждебными друг друг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были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прошлой зимой, а затем возобновились весной.

Визы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ут едиными

С целью устранения дискримин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граждан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К провело 25 июня экспертное совещ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меры по объединению видов разрешений на их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ещало устран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ю в отношен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путём объединения визы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F-4), визы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H-2),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я сферы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изам F-4.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явило, что на основе результатов обсуждений разработает конкретный план объединения новых виз. Также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должить исслед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 расширению сферы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обладателей визы F-4 и способах управления статусом занятости.

Realmeter: Рейтинг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59,7%

Работу Ли Чжэ Мёна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т 59,7%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 23 по 27 июня агентством Realmeter среди 2.511 взрослых граждан страны. 33,6% опрошенных не удовлетворены работой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а 6,8% не определились с ответом. Уровень поддержк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однялся на 2,2%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й неделей и составил 50,6%. Поддержка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упала на 1,4% и составила 30%.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зрыв в рейтингах между двумя партиями увеличился до 20,6%.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по рейтингу Ли Чжэ Мёна составляет ±2,0%, а по уровню поддержки партий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обоих показателей 95%.

Началась выплата пособий по труду и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26 июня в РК началась выплата пособий по труду и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за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вум миллионам домохозяйств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латить 1 триллион 834,5 миллиарда вон (1 млрд 354 млн долларов). Пособия получа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 млн 120 тыс. домохозяйств. Это на 50 тысяч домохозяйств больше, чем в поза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обия по труду и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переводятся на счёт или выплачиваются наличным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тодом, выбранным заявителем. Оповещение о переводе отправляется всем заявителям по моби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или почтовым уведомлением. Среди получателей пособий лица в возрасте 60 лет и старше составляют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42% (830 тысяч домохозяйств), из них домохозяйства, состоящие из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составляют наибольшую часть - 65% (1,3 миллиона домохозяйств).

В Риме состоялся медиафасадный показ в честь Года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РК-Италия

26 июня в римском Колизее состоялся медиафасадный показ,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в Италии и Корейским фонд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едено в честь Года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Кореей и Италией 2024–2025. Для показа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четыре видеоработы на тему «Эхо времени».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артисты визуализировали природу и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и Италии, спроецировав их на стены амфитеатр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ли видео корейского тигра, словно плывущего по внешней стене Колизея.

РК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РФ посетила Пхеньян и пообщалась с Ким Чен Ыном

Стартовавший в субботу 28 июня визит делег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во главе с Ольгой Любимовой в КНДР стал новы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быстро и масштабно развиваются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хеньяном. Визит,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е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оказался насыщен не только официальными встречами, но и символическими жестами, указывающими на новое качест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вух стран.

Как встречали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в субботу, 28 июн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столицы КНДР гостей встречал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ын Чон Гю и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Уже в тот же вечер в отеле "Янгакдо" на берегу Тэдонгана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банкет, задавший дружелюбный тон всей поездк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рошли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инистр Любимова провела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коллегой в зале заседаний Мансудэ, где стороны подписали н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2025-2027 годы. Отношения, ранее развивавшиеся в формате обменов коллективами и выставками, получили более прочную правовую основу.

Общение с вождем

Главным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плане событием в ходе визита стала встреча Ольги Любимовой с лидером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з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о встрече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л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играе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укреплении народной поддержк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ближения и назвал культуру "направляющей силой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ысоко оценил визит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назвав его важ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расширить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рода КНДР о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поездка поднимет боев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и дружеские чувства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Концерты и знаки

Сразу после встречи Ким Чен Ын вместе с министром Любимовой посетил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российских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а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хор имени Пятницкого и Московский театр танца "Гжель", в том числе исполнившие корейскую песню "Ариран" - популярный символ мира и единст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исполнители в ответ исполнили песни под изображение



флага КНДР и России.

Однак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ызвало визуальное оформление сцены: в качестве фона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фотографии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воюющих на стороне России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расценили это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й сигнал: Пхеньян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 не только в риторике, но и в образах,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Любопытной деталью стало и присутствие дочери Ким Чен Ына - Чжу Э, уже второй раз подряд сопровождающей отца н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Аналитики в Сеул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это как своеобразный "урок дипломатии" и возмож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публичной роли девушки в будущем. За рубежом немало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лагают, что Ким Чжу Э в будущем сменит отца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Жесты памяти и маршруты будущего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зложила венок к Монументу освобождения в Пхеньяне - памятнику советским воинам, погибшим в боях проти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1945 году.

Символизм нынешнего визита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Он стал не только празднованием годовщины договора, но и наглядной демонстрацией нового уровня культурной и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РФ и КНДР.

По мн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в Пхеньяне сегодня, похоже, стали намеренно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ть внутри страны "российскую культурную волну", чтобы блокировать возможно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в КНДР популярной в мир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K-POP эстрад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МИ: Метро Пхеньяна серьезно обновилось

Метр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ереживает заметную трансформацию. Как сообщила газета "Чосон Синбо", издаваемая в Японии в интересах Пхеньяна, с начала 2010-х годов и особенно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метрополитен главного города Страны чучхе "серьезно изменился".

Свет, экраны и смартфоны

Издание опубликовало на своих страницах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преобразившихся станций пхеньянской подземки. На опубликованных изданиям снимках запечатлены новые интерьеры метро Пхеньяна: высокие купольные потолки, яркое освещение, цифровые табло с маршрутами, погодой и температурой воздуха, а также пассажиры, сидящие на лавках и просматривающие смартфоны или газеты. Это контрастирует с видом подземки, каким его зафиксиров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 1992 году - тогда метро Пхеньяна выглядело аскетично, с минимальным удобством для пассажиров.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Чосон Синбо", тольк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были полностью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станции Кэсон, Моранбон, Чонну, Чонсын, Пульгынбёль, Хёкшин, а в 2025 году - Енгуан и Пуксо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ечь идет уже не о точечных улучшениях, а 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всей системы.

Символ эпохи 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объек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тро в Пхеньяне началось с подачи Ким Ир Сена, который еще в 1956 году дал установку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подземки. В 1962 году начались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а первая очередь - станция Понхва - была

открыта в 1973 год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етро в Пхеньяне появилось на год ранее, чем в столице Южной Кореи. Далее следовали очереди в 1975, 1978 и 1987 годах, завершившие формирование всей сети.

Глубина пхеньянской подземки достигает 100-150 метров. В КНДР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она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ак гигантское бомбоубежище на случай ядерной войны. В прошлом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Ир называл метро "памятником эпохи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подчеркивая его политико-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ноябре 2015 года нынеш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лично посетил одну из станций и дал указания по улучш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н распорядился изменить высоту потолков, установить длинные скамейки между колоннами на платформах, оснастить станции телевизорами и внедрить автоматические турникеты по примеру аэропортов. После этого Ким проехал по линии Кэсон-Ёнгуан на новом поезде, произведенном объединением имени Ким Чон Тхэ, и даже заглянул в кабину машиниста.

Пхеньянское метро давно уже стало элементом культурной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итрины КНДР, куда часто водят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его посещал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иностранные делега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в июне подземку осмотрела делегация МВД России во главе с замминистра Виталием Шуликой. В феврале станцию Пухын посетил посол КНР в КНДР Ван Яцзюнь, который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больше китайских туристов смогут оценить глубину, удобство и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ь пхеньянского метро".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а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По следам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1 июля 2025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нача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По следам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В ней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ста добровольцев из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Цель экспедиции — найти тела погибших героев и захоронить их с воинскими почестями. Столь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ранее здесь не проводились.

Штурм острова Шумшу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тал последней крупной операцией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ход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оветские десантники атаковал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озиции противника, имевшего десятикратное численн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и одержали победу. Японцы пытались скинуть десант в море с помощью танков, но не добились успеха. Подбитые машины так и остались на поле боя. Они станут частью экспозиции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здаваемого на Шумшу.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 ходе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сенью 2024 года поручил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Работы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находя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Первая группа участников экспедиции в составе 30 человек уже прибыла на Шумшу на двух вертолетах. В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ы команда сосредоточилась на обустройстве в лагере, который оснащен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 Ребята только приехали, сегодня у них будет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й день. Мы поможем их расположиться в нашем палаточном лагере, расскажем, как обстоят дела с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ем, питанием, какой распорядок дня и проведем для них обзор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сле чего, мы соберемся с командирами отрядов, выстроим каждому маршрут и уже завтра участники выйдут в поля, - поделился Артем Бандура,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Работать экспедиция будет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йоне горы Северной. Именно здесь шли наиболее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Точное число павших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неизвестно до сих пор.

- Конечно,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сюда попасть. Дорога, которую мы преодолели, того стоила. Это знаковое место в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Шумшу напоминает, какой ценой далась Победа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Все заряжены на работу, у каждого есть опыт в разных экспедиция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местах бое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Поэтому нас не пугают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придется находиться, - поделилась Маргарита Морозова, участница экспедиции из Москвы.

Сахалин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начал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до начала экспедиции. Уже обнаружены личные вещ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элементы обмундирования. Они могут помочь при установлении личности павших. Кроме того, найдены и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остатки японского миномета калибром 320 мм.

Подведут итоги экспедиции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18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в день 80-летия высадки советских десантников на Шумшу.

1 миллион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его проекта: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ОстроVa» смогут защитить грант в конкурсе Росмолодёжи

Участни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Va»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Форумы с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от Росмолодёжь.Гранты. Приём заявок стартовал, 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о 18 номинациям. Защита проектов состоится 29 сентября. Общий фонд конкурса составит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до 22 сентября на платформе Росмолодёжи.

Макс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гранта —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Проект, прошедший отбор на конкурсе и получивший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необходимо реализовать с ноября 2025 года по сентябрь 2026.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гут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отбор на форум «ОстроVa»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йдёт в очном формате. На защиту проектов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дут эксперты Росмолодёжи. Специалисты буд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награждении победителей 4 октября.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мы сопровождае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времени — проводим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дсказываем, как правильно сделать проект и как защититься.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качать свои навыки,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и воплотить свою мечту, — подчеркну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антового трека форума «ОстроVa» Офелия Бекренёва.

Конкурс пройдёт по следующим номинациям: «Создавай возможности»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рганизацию занятости молодёжи, в том числе самозанятости;

«Развивай среду»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малых территорий;

«Объединяй»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

ку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Защищай»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идеологии экстремизма и терроризма в молодёжной среде;

«Стирай границы»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боту с людьми с ОВЗ;

«Сохраняй природу»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просвещение;

«Двигай сообщества»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и развитие студен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узов;

«Вдохновляй»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твор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и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Делись опытом»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ередачу успешного опыта молодёжи и развитие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в молодёжной среде;

«Береги»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действие развитию гражданск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Открывай страну»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и развитие молодёжного туризма;

«Будь здоров»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спорта и ЗОЖ;

«Помни»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Расскажи о главном»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молодёжных медиа;

«Родные любимые»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хранени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МЫБМЕСТЕ»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у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Ты не один» —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рофилактику негативного девиантного поведения и социализацию молодёжи;

«Вклад в будущее» — молодёжные инициатив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вовлечение молодёжи в сферу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том числе, реализуемые сообществами молодых учёны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сперты конкурса Росмолодёжь.Гранты разработали обучающий онлайн-курс по созданию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ля участия в грантовых конкурсах. В материале представлены особенности разработки проекта и оформления заявки. По итогам прохождения курса участникам выдается сертификат.

Напомни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форум «ОстроVa» платформы Росмолодёжь.Форумы пройдёт с 28 сентября по 5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ой темой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длится до 21 июля на платформе Росмолодёжь.Форумы. Событие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ёжь и дет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ёжи (Росмолодёжь)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ва новых резидента TOP «Сахалин» запустят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Компании «ЭКОЛАЙФ» и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в статусе резидентов TOP «Сахалин»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бщий объем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й с Корпорацие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200 млн рублей, создается 26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оект компании ЭКОЛАЙФ» включ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20 жилых домиков,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зала на 100 мест, палаточного лагеря на 50 человек,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велосипедных дорожек, верёвочного парка с 40 этапами и зоны для пейнтбола, а также будут построены 5 всесезонных беседок для отдыха. «Эко-лагерь» будет вводиться в работу в три этапа с 2025 по 2028 годы.

- Наш «Эко-лагерь» - это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й формат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на Сахалине. Мы создаем не просто место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а полноценную экосистему для активного и 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досуга. Здесь семьи смогут комфортно разместиться в современных домиках, дети -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и спортивных активностях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а родители - отдыхать, зная, что их дети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з льготного режима TOP мы бы не приняли решения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т важный для региона проект. Статус резидента позволяет нам сделать предприятие рентабельным и получ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КРДВ, - отметил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ЭКОЛАЙФ» Ксения Усатова.

Компания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построит комплекс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в рамках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состав войдут гостиница на 10 номеров, кафе с панорамным остеклением на 50 мест, две банные зоны с полным комплексом спа-услуг, места для отдыха с зонами для гриля. Запуск комплекса запланирован в 2027 году.

Александра Хан,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Мы решили начать этот проект благодаря наличию преференций и льгот режима TOP. Статус резидента дает нам воз-

мож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 гостеприимстве и создав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Наш комплекс сочетает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и традиционный уют горных шале. Мы удели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деталям: от четырехслойного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го остекления до продуманных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ешений, позволяющих комфортно размещаться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В банных зонах реализуем уникальную концепцию - сочетание классических русских банных традиций с элементами современных спа-практик».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КРДВ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Марии Гришиновой, проекты новых резидентов TOP «Сахалин»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Компании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логовыми льготами, включая нулевую ставку по налогу на прибыль и имущество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пяти лет, платить сниженные до 7,6%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получ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КРДВ и властей региона в формате «единого окна».

- Реализация этих проектов укрепит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а, 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сопутствующ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ы окаже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и обеспечим применение налоговых льгот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еференций, - подчеркнула Мария Гришинова.

Всего на TOP «Сахалин» бизнес реализует 73 проекта, 17 из которых введены в работу.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вложено 39,1 млрд рублей инвестиций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186,6 млрд рублей, создано 3,3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Резидентам TOP доступны знач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и преферен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сниженные до 7,6%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нулевые налоги на землю первые 3-5 лет, на имущество и прибыль первые 5 лет, сниженные ставки по указанным налогам с 6-го по 10-ый годы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й и других видов поддержки.

Процедура гидрокинезиотерапии позволяет быстрее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участникам СВО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СВО, попадая в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лучает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гидрокинезиотерапию.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одной процедуры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оснащено бассейном длиной в 25 метров. Занятия с инструктором позволяют снизить нагрузку на суставы и позвоночник – они облегчают движения и уменьшают болевые ощущения.

Гидрокинезиотерапия – метод лечеб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ключающий в себя выполнение физических упражнений в воде. Это важный элемент в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нервной системы. Тренировки в бассейне проходят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с инструктором, с учетом всех особенностей пациентов.

- У нас есть доски, гантели, нудлы, экспандеры. Всё,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конкретному пациенту для скорейшег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идрокинезиотерапия позволяет достигать результатов, отличных от занятий на суше, потому что в водной среде ослабленные мышцы могут быть задействованы за счет разгрузки веса. По этой же причине бассейн даёт нам преимущество в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контрактурами - ограничением подвижности в суставе. Чаше всего с такой проблемой как раз попадают участники СВО, - отметила заведующий амбулатор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комплекс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Наталья Потапова.

Анатолий Скачков получил минно-взрывное ранение в 2023 году. После лечения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 военном госпитале мужчину направили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в профи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Сейчас он находится в отделении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и ежедневно выполняет предписания врача – занятия лечебной физкультурой, выполнение специальных упражнений на тренажёрах, гидрокинезиотерапия.

- Эффект после полчасовой тренировки заметен – появляется ощущение лёгкости. Времени прошло пока мало, но я уверен, что после трёхнедельного курса моё состояние сущ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ся. Видно, что врачи здесь –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воего дела, все работают на благо пациентов. Это очень приятно, - отметил Анатолий Скачков.

Тренировки в бассейне –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комплекс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к полноценной жизни. Однако они имеют и ряд ограничений: воспалительные процессы, некоторые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е заболевания, кожные инфекции и открытые раны. Напомним, что все процедуры проходят в областно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птимальна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доровья медицинская реабилитация»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хождения реабилитации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учреждении определяет лечащий врач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дицинскими показания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청년들, 모국서 직업연수 받는다

재외동포청, 7,8월 두달간 한국폴리텍Ⅱ 인천캠퍼스서 실시…6월30일 입교식
코딩 · 산업디자인 등 분야 200시간 실습…한국어 배우고 한국문화도 체험

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및 CIS지역 고려인 청년들이 모국에서 직업연수를 받는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에서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선발한 고려인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연수를 실시한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은 코딩 · 산업디자인 등 산업 분야에서 200시간의 실습을 하고, 이와 더불어 90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연수기간동안 삼성전자, 카카오 등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역사 ·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고려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역량을 높이고,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려인 청년 대상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국폴리텍 대학 인천캠퍼스에서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연수를 실시한다. [재외동포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수 입교식은 6월 30일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에서 최민환 폴리텍대학 학장과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민환 학장은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거주국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입교한 교육생들을 환영하며, 발전된 대한민국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

이기성 국장은 “폴리텍 대학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으로 연수생들이 목표한 바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동포청이 폴리텍 대학과 함께 지원하겠다.”며 “두달간의 연수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인생의 성공 스토리들을 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연수생 대표인 김 다나마리 학생은 “연수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청과 폴리텍 대학에 감사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배워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수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은 대표적인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 직업중심 실무교육에 특화돼 있으며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인 지원 사업 경험도 풍부하다.

(재외동포청 제공)

법무부, '동포 차별 해소를 위한 비자 통합' 간담회



◀ 법무부는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적에 따른 동포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체류자격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합하고 F-4 비자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국 동포·고려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자 통합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F-4 자격 체류자의 단순 노무 취업 활동 범위 확대와 취업 현황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법무부, 재외동포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 선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25개 단체 중 공공성과 동포 지원사업 운영 경험, 동포정

착에 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2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들은 국내 거주 동포들에 대한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 동포 포용, 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 통합 등 재외동포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인 차세대 정착지원 어떻게'…재외동포청, 정책 발굴에 '온힘'

제과제빵 직업훈련 및 '미래이음' 교육 프로그램 현장 찾아가 격려 및 의견청취
7월11일 호서대서 아시아발전재단과 '고려인 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 도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부모와 함께 중도입국한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진로·취업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고 있다.

6월 30일 직업훈련 2기 과정(6주간 진행)에 참가한 고려인 청년 15명을 격려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고려인 청소년 대상 제과제빵 직업훈련 입교식에는 황유경 국내동포TF 팀장이 참석했다.

입교식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에서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재단은 지난 1월에도 고려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40여일 간 우리나라 유명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실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황 팀장은 입교식에서 “고려인 차세대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정책 대화, 지자체 및 동포단체 보조금

사업,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동포청은 11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열리는 ‘2025 전반기 고려인청소년교육협력협회 포럼’에도 이기성 정책국장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아시아발전재단 주최로 ‘고려인 청소년과 학교밖 교육’, ‘고려인 청소년과 진로교육 멘토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동 포럼에는 손은숙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장, 소학섭 로템나무국제대안학교 이사장, 김기영 한양대 극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전득안 광주 고려인국제학교 이사장, 김동원 양산 고려인지원센터장, 채예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KGN) 이사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동포청은 앞서 4월 12일 러시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재형(1860~1920년) 선생을 기리는 장학금 수여식에도 이기성 국장이 축사를 통해 고려인 대학생과 고등학

생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달라며 응원했다.

당시 이 국장은 “고려인 차세대들이 한국에 정착해 성공스토리를 쓰고,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이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 이 국장은 지난 3월말 ‘미래이음’(FUTURE LINK)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만나 “여러분의 도전에 재외동포청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연 6회 6주간 진행되는 ‘미래이음’ 교육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고려인의 역사, 재테크 및 자산 관리, 한국 예절 등의 교육을 받는다.

동포청은 또한,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KGN과 함께 음식 배식 및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국내 거주 고려인 사회가 이 땅의 국민과 하나되는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자연을 닮은 말

우리말에는 닮아서 재미있는 말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이야기하는 닮다와 담다를 들 수 있습니다. 닮다는 둘이 비슷하다는 뜻인데, 담았다는 말과 비슷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모습을 내 눈에 담고, 누군가의 마음을 내 속에 담으면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고, 부부는 서로 닮아갈 겁니다. 상대를 닮아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두 단어가 보여줍니다.

자연을 나타내는 말도 서로 닮은 재미있는 어휘가 많습니다. 닮은 단어를 보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라, 서로 닮아서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되는 말입니다. 언어학적으로는 민간어원에서 많이 쓰이는 예입니다. 저는 민간어원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기에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어원이 곧 우리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나타내는 몇 단어를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어휘 또는 다른 어휘도 민간어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섬’이라는 어휘를 보겠습니다. 저는 섬의 느낌을 떠올려보면 섬 높은 곳에 서 있는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고도 하고, 내 속에 섬이 있다고도 하죠. 그것은 내가 그곳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서다’와 섬은 서로 관계가 있는 어휘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땅이 바로 섬이 아닐까요?

‘비’는 어떨까요?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구름을 비워내는 겁니다. 구름 속의 어둠은 눈물을 참고 있는 우리와 닮았습니다. 그러기에 참고 참았던 눈물을 한바탕 소나기로 퍼붓는 것이겠죠. 빗줄기가 쏟아지고 나면 하늘의 먹구름은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란 하늘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기에 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은 어떨까요? 바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희망, 즉 바람과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나를 항상 나아가게 하는 바람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날리게 하고,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날리는 바람은 내 속에 새로 솟아나는 희망입니다.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다면 살아가는 의미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는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모여드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시내와 강을 거쳐 바다를 향합니다. 때로는 더러움도, 때로는 서러움도 모두 신고서 바다를 향합니다. 따라서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받아’라는 말과 ‘바다’라는 말이 닮아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들은 어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원이라고 한 겁니다. 민간어원은 과학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는 민간어원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개인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삶이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섬 위에 우뚝 서고, 어둠을 다 비워내고, 늘 바람 속에서 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저도 자연을 닮은 삶이고 싶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ак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бизнес-направления Lifestyle в Авито Алексей Гевлич, дети быстро растут, а значит, у некоторых вещей для них очень короткий срок эксплуатации. Коляски, техника, мебель и верхняя одежда не успевают изнашиваться, поэтому могут принести пользу не одной семье.

«В мае–апреле 2025 год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Авито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выросли продажи детской мебели, одежды и обуви для мальчиков и девочек в ресейле. Более чем на 70% — продажи колясок и автокресел. Покупки в ресейле помогают существенно сэкономить: например, до 70% при покупке автокресел или мебели „с рук“ и до 40% — при покупке детской одежды», — дополнил директор.

Отметим, что 74% опрошенных хотя бы раз сами продавали на платформах объявлений детские вещи, а еще 14% — только собираются этим заняться.

중국 미혼 여성들, 포르쉐 차를 모는 매력적인 남성과 드라이브 즐기는 데 비용 지불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매력적인 남성이 모는 호화 차량을 99위안(1천 루블리)에 빌릴 수 있다. 사회적 단편화와 고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총체적, 사회적 역할이 변형되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지가 이런 경향을 기사로 실었다.

중국의 남부 도시들인 상하이, 항저우, 샤먼에서는 싱글 여성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티 라이드(도심 드라이브)'라는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회 99위안으로 이 여성들은 반드시 남성이 모는 최고급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이다.

호화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을 그들은 '부처(보살)'라 칭한다. 운전자들은 대개 자신의 호화 차량으로 돈을 버는 부유한 가정의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되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선호한다. '부처(보살)'는 자체 매력과 관대함으로 유명하고, 포르쉐, 페라리, 롤스로이스와 같은 차량으로 드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좀 덜 부유한 '부처'는 메르세데스-벤츠나 비엠더블유(BMW) 차량으로 운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와 특별 앱을 통해 여성들은 차량과 운전자를 선택한다. 이런 운전자들 중 한 사람이 '바람처럼 사라지다'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키는 180 cm이며, 석사 출신이고, 전직 사업가라는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또한 청년은 헬스장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과 호화 포르쉐 카이엔 사진도 게시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회 이용료는 88위안으로 도심 드라이브 시 그는 자신을 큰형, 남자친구, 하인 역할까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소개한다. 소셜미디어에 예약 그룹을 개설하여 거기에 이미 400명 가량이 그의 서비스를 추천하면서 차량 내 향기로운 냄새와 부드러운 주행과 친절함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우한 출신의 24세의 남성은 '레몬이 든 병'이란 별명으로 유명하여 30분에 99위안으로 페라리 차량을 운행한다. 그는 자신을 낙관주의자, 드라이브에 열광하는 자,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드라이브시 개인적 문제를 기꺼이 돕는 자로 자신을 피력하고 있다.

В Китае одинокие женщины готовы платить, чтобы прокатиться на Porsche с симпатичным мужчиной

В Китае женщины могут арендовать роскошный автомобиль с сопровождающим мужчиной всего за 99 юаней (примерно 1 тысяча рублей). В условиях растущего одиночества и фрагментации общества гендер-

ные и социальные роли трансформируются. Мужчины уделяют женщинам все меньше внимания, поэтому им приходится проявлять инициативу, чтобы найти эмоциональное утешение. Об этой тенденции пишут в газете South China Morning Post.

В южных городах Китая — Шанхае, Ханчжоу и Сямыне — молодые одинокие женщины, возвращаясь с работы и стремясь снять стресс, обращаются к новому тренду под названием city ride («катание по городу»). За 99 юаней они могут прокатиться на дорогах автомобилях с обаятельными мужчинами.

Водителей роскошных авто называют «бодхисаттвами» (буддами). Чаще всего это студенты из состоятель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подрабатывают на своих дорогах автомобилях. Они активн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но предпочитают скрывать свои лица. «Бодхисаттвы» известны своим обаянием и щедростью. Они разъезжают на таких автомобилях, как Porsche, Ferrari и Rolls-Royce. Менее обеспеченные «бодхисаттвы» предлагают услуги на Mercedes-Benz и BMW, что делает этот тренд доступным для большего числа людей.

Женщины выбирают автомобиль и водителя через соцсети или специ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Один из таких водителей известен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Унесенный, как ветер». Он опубликовал в интернете следующие данные о себе: рост — 180 см, аспирант и бывш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Также парень выложил селфи из спортзала и фото дорогого Porsche Cayenne. За одну поездку «Унесенный, как ветер» берет 88 юаней. Во время поездок по городу он готов взять на себя роль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бойфренда или даже лакея. В соцсетях он запустил группу бронирования, где уже 400 человек рекомендуют его услуги. Похвала идет за приятный запах в салоне, плавное вождение и вежливость.

Тем временем 24-летний уроженец Уханя, известный как «Банка с лимонами», предлагает поездки на Ferrari по тарифу 99 юаней за полчаса. Он позиционирует себя как оптимист и энтузиаст вождения, готовый помочь снять стресс от работы и личных проблем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Р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